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지역 기업 성장 지원”

BNK경남은행은 지난16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주재로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영전략회의에는 BNK경남은행 경영진 및 본부 부서장, 영업점장 등 350여명이 참여해 ‘지역경제의 도약’을 주제로 하반기 경영전략을 논의했다.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정영두 김해시 시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제네시스, 하남시 ‘마그마 X GMR’ 특별전 개최

제네시스는 내달 17일까지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에서 ‘제네시스 마그마 X GMR(Genesis Magma Racing)’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존’과 ‘제네시스 마그마 존’으로 구성해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네시스 마그마 X GMR’ 특별전에 전시된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 모델. /제네시스



키움증권, ‘키움드림 5기’ 수료식 성료

키움증권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TP타워 키움증권 본사에서 키움드림 5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키움드림 5기 베스트 멘토로 선정된 (왼쪽부터)김성아 멘토(23), 정수환 멘토(24), 한유정 멘토(22), 최현준 멘토(24)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키움증권



이노비즈협회, 차세대 경영자 4기 배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이노비즈기업의 차세대 리더들이 11주간의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가 진행한 ‘제4기 이노비즈 차세대 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정광천 협회장(앞줄 왼쪽 5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한솔제지 중소 출판·인쇄업계에 종이 지원

한솔제지가 내수 경기 둔화와 제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출판·인쇄업계를 위해 ‘출판·인쇄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9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인·독립출판사를 포함한 중소 출판·인쇄업체 200곳을 선정, 업체당 최대 300만원 상당의 종이를 무상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중동 분쟁 장기화로 촉발한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출판·인쇄업계 전반에 운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김승호 기자 bada@

“50도 폭염도 거뜰”… 삼성전자, 중동 HVAC 시장 공략

〈냉난방공조〉

모스크 100여곳에 1000여대 공급
이슬람 전통 문양 반영한 디자인

삼성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사원(모스크)에 맞춤형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대규모로 공급하며 중동 B2B 공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라마 등 8개 주요 도시의 모스크 100여곳에 고효율 HVAC 솔루션 1000여대를 공급한다. 공급 제품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360 카세트’로 종교 시설의 공간 특성을 고려해 공간 전체에 균일한 냉방과 정숙한 운전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360 카세트는 기존 사각형(4Way) 디자인 대신 세계 최초로 원형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이다. 풍향을 조절하는 블레이드로 인한 기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특허받은 ‘부스터 팬’ 기술을 탑재해 냉기를 수평 방향으로 넓고 멀리 보내 공간 전체에 균일한 전방위 냉방을 구현한다.

천장이 높고 개방형 구조인 모스크



사우디 모스크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360 카세트’가 설치된 모습. /삼성전자

에서도 냉기를 고르게 전달할 수 있으며 천장 설치 구조로 바닥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저소를 설계할 때 적용해 배배 공간에 적합한 정숙한 실내 환경도 제공한다.

실외기는 사우디의 고온 기후를 고려해 외기온도 50℃ 이상에서도 안정적인 냉방 성능을 내도록 설계됐다. 사우디는 여름철 낮 기온이 50℃에 육박해 연중 냉방 수요가 끊이지 않는 시장이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현지화에 공을

들었다. 모스크는 내부 인테리어와 건축 양식의 조화가 중시되는 종교시설인 만큼 제품 패널에 이슬람 전통 문양을 반영한 전용 디자인을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급을 계기로 지난 6월 모스크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현지 파트너 ‘고루스 채리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사우디 내 모스크 대상 공급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 공조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HVAC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10억달러(약 15조원)에서 2033년 190억달러(약 26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사우디 시장은 올해 33억달러에서 2034년 63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커지며 중동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성장의 배경에는 사우디 정부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 ‘비전 2030’이 있다. 내وم시티를 비롯한 스마트시티와 대형 인프라 건설이 잇따르면서 상업·공공 시설용 고효율 냉방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HVAC를 가전 사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현재 전 세계 48개국에서 공조 사업을 전개 중이다. 2024년에는 북미 공조 업체 레녹스와 합작법인 ‘삼성 레녹스 HVAC 노스 아메리카’를 설립하고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중동에서는 교통·교육시설 등 B2B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NH농협금융·아문디, AI운용 도입 논의 세계유산위원회서 한국 갯벌 알린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 아문디(Amundi) 본사에서 ‘NH농협금융-Amundi 파트너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올리비에 마리에 Amundi 부사장은 해외투자 협업 확대 등 양사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과 합작법인 NH-Amundi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를 논의했다.

특히 ▲Amundi의 자산운용·투자 전략·리서치 분야에 특화된 AI 운용 시스템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국내 연금시장 변화에 대비한 글로벌 선진 연금운용 모델의 선제적 구축 ▲수탁능력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양사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오른쪽)과 올리비에 마리에 아문디(Amundi) 부사장이 ‘NH농협금융-Amundi 파트너십위원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의 협력 확대는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구축해 가기 위한 전략적·보완적 과제”라며 “Amundi의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을 효과적으로 접목해 NH-Amundi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사의 글로벌 파트너십도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한전원자력연료,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참가비 무료, 홈페이지서 접수

평소 일반인이 접하기 힘들었던 원자력연료 제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의 장이 열린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민 참여형 견학 프로그램인 ‘KNF와 같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원자력연료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일방향적인 설명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참가자가 원자력연료를 직접 보고, 만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참가자들은 매일 정

기적으로 열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료 제조 체험과 실제 제조 현장 방문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한전원자력연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상세한 프로그램 일정과 세부 신청 방법 역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이 원자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수부, 부산서 29일까지 개최

해양수산부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과 ‘K-씨푸드’ 홍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신규 등재와 위험유산의 관리방안, 세계유산기금 운영 등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내에서는 첫 개최로, 이날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196개국 대사·대표단을 비롯한 3000여 명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해수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갯벌 홍보관’을 운영해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과 갯벌 관련 정책을 홍보한다. 또 ‘K-씨푸드 홍보관’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1년 7월 서·남해안 갯벌 4곳(전남 신안,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전남 보성·순천)이 멸종위기 철새의 서식지로서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유산명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갯벌 홍보관에서는 갯벌 보전을 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행사 포스터 /부산광역시

한 해양보호구역 제도, 갯벌복원 사업, 갯벌가치를 활용한 생태관광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뽕배어업 등 갯벌과 관련된 정책을 홍보한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된 갯벌의 홍보 영상 상영, 갯벌 생물모형 전시 및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K-씨푸드 홍보관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구성된다. 김, 전복 등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 시식과 함께, K-씨푸드 홍보영상 상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갯벌과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애 기자 kys@

인사 ◆국가보훈부 △국제보훈협력관 이승진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장 박민식(파견)

◆병무청 △과장급 개방직 위임용 △감사담당관 김미옥 △과장급 전보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원동병무지청장 김지연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이부용 △운영지원과장 윤관상 △서울서부지청장 천경기 △서울관악지청장 조선열 △평택지청장 김민철

부음 ▲김명숙(향년 88세)씨 별세, 이준영(부산일보 전 논설위원)씨 모친상, 이숙경씨 시모상, 이태동·곽희범씨 장모상 = 18일 오후 4시25

분, 울산 동강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 장지 울산하늘공원. 052-241-1445

▲박영연(향년 77세)씨 별세, 정수만씨 배우자상, 박정화·명화·미화씨 부친상, 유수희씨 시부상, 배완호(MBN 영상취재부 기자)씨 병부상, 박성후씨 조부상, 김태양·김태강·배수현씨 외조부상 = 1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성빈센트 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031-249-8444

▲조영희씨 별세, 강숙희(밀양시노인장애인과)씨 시모상 = 18일, 경남 밀양시 창밀로(내이동) 한솔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55-356-7213